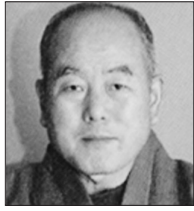


서로에게 소식을 전합시다

동 정

◆ 김진홍 회원 (경우산악회 운영위원)



퇴직이후 경찰청 불교회 총무를 역임하며 사진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 회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경기도 광명시 스피돔 갤러리에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스피돔 경류장 개장 기념 초대전을 가졌다. 한편 김 회원은 지난 3월 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충무로 Cydream 포토갤러리에서 제 8회 한길포토라인 회원전을 개최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 010-6317-3150)

◆ 김일기 회원



한국서화작가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 회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국제 디자인 프라자 전시장에서 蘭 그림 전시회를 갖는다. 김 회원은 현재까지 절부터 틈틈이 난을 그려왔고, 퇴직이후에는 전업작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서화분야에서는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 02-2241-9771)

◆ 이종우 회원 (부산 경우회 지문위원장, 前 총경)

이 회원은 최근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원은 『택시 운수업계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자기전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병은 회원 (부산진 경우회장)

최근 부산지방경찰청 직무교육장에서 각 지구대 소속 경위, 경사급 현직 경찰관 6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유 회원은 '강력사건 출동 조치 및 수사기법'이란 주제로 열변을 토해 현직 경찰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051-809-0413)

주 소 변 경

◆ 김우현 前 치안본부장

서울 서초구 잠원동 63-2 신반포 청구APT 101-1509
(☎ 02-599-5572)

◆ 전북무주 경우회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773 무주경찰서내
(☎ 063-332-2447)

◆ 경남김해 경우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09-1 중앙치안센터 2층
(☎ 055-328-2266)

◆ 김재덕 회원 (前 총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20 중산빌딩 5층 한반도 법무법인 변호사 김재덕 사무실 (☎ 02-534-1717)

◆ 이장재 회원 (前 총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2번지 송파 삼성래미안 @ 109동 2101호
(☎ 02-415-7752)

◆ 차세웅 회원 (인천경우회 부회장)

인천시 부평구 부평 1동 549-36 문화드림 빌 1414호
(☎ 032-522-0319)

◆ 유승태 회원 ((주)남강 여행사 하나투어 전무)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42 부림B/D 12층
(☎ 02-771-8866 H.P 011-411-5335)

◆ 이영태 회원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 2
(☎ 031-868-6611)

◆ 이일하 회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법계동 목련대우APT 208-108
(☎ 031-382-0129)

◆ 조영장 회원 (서울 동방여행사 회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 유창빌딩 901호 (☎ 02-733-0075)

◆ 강문호 회원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88-1 도화 썬 빌리지 201-503호
(☎ 064-784-1115)

◆ 김성근 회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87 유승양브와주APT 210-107
(☎ 031-946-0854)

◆ 장병호 회원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486-2 삼정그린빌APT 107-1405
(☎ 053-654-7227)

◆ 이덕문 회원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9 올림픽션수기자촌APT 203-1101
(☎ 02-431-3228)

◆ 성춘봉 회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 쌍룡APT 204-1005
(☎ 031-477-7107)

권호영 회원 장학금 200만원 기탁

- 2000년 11월에는 屍身死後 寄贈도 -



민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많은 금액을 기탁하지 못해 부끄럽다”는 권 회원은 퇴임 후에는 거주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아 이웃간의 화합을 도

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3월 2일 경기도 의왕시시장의 표창을 받는 등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11월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기에 아름다운 죽음을 남겨 사회에 보탬을 줘야겠다”고 하면서 부인(이순자 여사)과 함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死後屍身을 기증하는 등 몸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경찰인의 참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 이평길 회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2동 669-9 벽산APT 121-1103
(☎ 051-891-7557)

◆ 조병규 회원

대구시 북구 서변동 월드매트리아APT 710-1101
(☎ 053-956-1323)

◆ 하광부 회원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성원APT 104-2303 (☎ 051-264-1145)

◆ 김태순 회원 (부산경우회 이사)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삼익뉴비치APT 506-403
(☎ 051-623-5686)

◆ 전병조 회원 (부산경우회 이사)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르메이에르 동래타운 1804호
(☎ 051-556-3235)

◆ 최낙병 회원 (부산 금정경우회장)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롯데캐슬APT 501-1104
(☎ 051-514-5170)

결 혼

◆ 김광식 前 경찰청장의 장남 도형군이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웨딩 프라자에서

◆ 김종겸 회원 (前 충남경찰청장)의 장남 재욱군이 지난 3월 11일 오후 1시 서울 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 장태규 회원 (서울 중로경우회장)의 차녀 정민양이 지난 3월 11일 서울코리어나 호텔 4층다이아몬드홀에서

◆ 이종안 회원의 장녀 지현 양이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 샴페인 홀에서

◆ 서경석 회원의 딸 태원 양이 지난 3월 25일 서울 퇴계로 한국의 집에서

◆ 배유진 회원 (경기경우회 이사)의 장남 태순 군이 지난 3월 19일 오전 12시 수원축협 웨딩홀에서

부 음

◆ 성낙함 회원 (前 서울중구청장)이 지난 3월 10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57세

◆ 강영규 회원 (전 경찰대학장)의 부친이 지난 4월 3일 오전 3시경 노환으로 별세. 향년 92세

◆ 이경모 회원 (前 총경)이 지난 3월 31일 오전 9시 숙환으로 별세

◆ 박정자 회원 (前 여경회 사무국장)이 지난 3월 15일 오전 2시 숙환으로 별세.

◆ 박한중 회원 (前 경우회 총무국장)의 부친 박진현 남이 지난 3월 16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90세 (☎ 010-9733-7045)

◆ 이종복 총경 (충북 음성시장)의 모친이 지난 3월 18일 오전 8시경 숙환으로 별세. 향년 78세

모임안내

◆ 外友會

오는 4월 10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입정동 소재 을지면옥(☎02-2274-6863)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 회장 정원보 019-377-1306
- 총무 조부호 011-389-8860

新任 忠義會長에 金基濤 前 강동서장



김기영 서울 경우회 부회장이 최근 충의회 제 19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 되었다. 신임 김기영 회장은 대공요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면서 『결속된 힘으로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안보단체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직시절 경찰청 경무과장, 서울 강동서장 등을 역임하며 대공업무를 비롯한 경찰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專門醫에 듣는다

만성간염, 감기약도 간에 부담

— 변관수 교수 (고대구로병원 간센터)



우리나라의 만성 간염의 대부분이 B형 및 C형 간염이나, 확실한 특효약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시판되는 대부분의 간장약은 간장의 활동을 보완하는 약제들로 이런 약제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환자 자신의 병에 대한 저항력과 재생력이 회복의 관건이므로 환자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의사와 상의하여 간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균형있게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공적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리 몸에 들어온 대부분의 약제는 간에서 처리되므로, 만성 간염환자에게 대부분의 약제는 간에 부담을 준다. 심지어 감기약조차도 간에 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약물 투여가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지병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처방을 의사에게 받아 복용한다.

최근 간에 좋다고 구전되고 있는 성분 미상의 민간요법이나 한약제들이 많은데, 이들 약제가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 의문이지만 실제로 병실에서는 이러한 약제복용 후 악화된 간염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이나 한약제일지라도 간에 이롭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러한 약제들의 복용은 삼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음주는 절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날 때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면 된다.

최근 일부 B형 및 C형 바이러스성 간염환자들의 치료에 바이러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이 사용되고 있으나, 모든 환자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인터페론은 간경화로 진행되지 않은 환자, 최근에 발병한 환자, 염증이 심한 환자일수록 좋은 효과가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페론은 당뇨병환자의 인슐린주사와 마찬가지로 환자 스스로 주사를 놓게 된다. 원인 바이러스에 따라 다르지만 주 3회로 4~6개월간 치료를 하게 된다.

이 치료 중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중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파오는 독감증상이 가장 많다.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혈액 검사 이상도 생길 수 있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면서 간염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치료 중에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은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경과를 밟게 되는데, 이런 경과 중에 일부의 환자는 간경화로 진행을 하게 되며, 또한 일부에서는 간암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만성 간염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간염의 치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방이므로 가족 모두는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료안내 02)818-6591)

경우신문 원고모집 : 02-2234-1881

SYS (주)씨스팜 독점공급원 www.syseshop.co.kr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관절엔 역시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 <식약청 인정>

1. 국내외 인체시험 완료
2. 관절의 기능성을 1호로 인정받은 제품
3. 초록입홍합 제품 중 인정받은 유일한 제품

● 한국일보 4년 연속 히트상품 선정

신한은행 297-05-011662 농협 067-01-280253 예금주 : (주)씨스팜

문의 : 02) 796-0065